

**최** 근 泰國은 국내 석유제품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제능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泰國의 석유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연료유의 수요증가와 석유화학산업육성 등의 요인에 의해 '95년까지 연평균 7.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에 따르면 정제능력은 현재의 243.8천B/D에서 1995년까지

## 泰國의 석유산업동향과 전망

500천B/D로 증대되어 제품수입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자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泰國의 석유제품 수입은 현재의 150천B/D에서 50천B/D로 감소하는 반면, 原油수입은 400천B/D로 증가할 전망이다.

泰國의 GDP는 '88년의 11% 증가에 이어 '89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따라 石油소비는 '87~'89년 기간에 연평균 11.8%의 성장을 기록, '89년 소비량은 320천B/D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石油소비증가는 주로 수송부문의 소비증가에 기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민소득증대, 관광사업의 지속적 성장에 의해 '90년대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泰國灣의 Rayong에 대규모의 임해공업단지(Eastern Seaboard Development Project)를 조성, 석유화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석유화학원료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석유소비는 '95년까지 연평균 7.1% 증가, 451천B/D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石油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해 국내생산은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89년 국내石油생산은 소비량의 14%인 46.2천B/D에 불과하며, 매장량 역시 322백만배럴('89년말)로서 '89년 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가채년수는 19년에 불과하다. 한편 '89년 原油수입은 12개국으로부터 227천B/D에 이르고 있다. 수입선은 주로 中東에 편중되어 있으며('88년 기준 65%)

'95년의 수입량은 450천B/D로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150천B/D에 달하는 석유제품수입을 '95년까지 50천B/D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급증이 예상되는 석유제품수입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泰國은 현재의 정제능력(243.8천B/D)을 '95년까지 450~500천B/D 수준으로 재고시킬 계획이다. 이는 국내의 석유제품 소비증가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제능력확대를 위해 泰國은 국영석유회사(PTT)를 주축으로 시설확대 및 고도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PTT는 산하 3개 정유소의 정제능력을 현재의 243.8천B/D에서 '90년말 332.5천B/D, '92년까지 346.5천B/D로 증대시키는 계획을 포함, '95년까지 총 450~500천B/D 규모로 정제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품의 80%를 국영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에 파는 Bangchak은 앞으로 3년 안에 생산을 65천B/D에서 100천B/D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Thai Oil Co. Ltd.는 그의 처리능력을 65천B/D에서 115천B/D로 증가시킨 230백만달러 상당의 hydrocracker complex를 완공했다. Thai Oil은 또한 원유정제능력을 190천B/D로 증대시킬 수 있는 확장사업에 345백만달러를 투자하였다.

또한 泰國은 정유시설확대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外資유인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泰國정부는 합작형태 및 인센티브(생산량의 2%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油田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법규를 수정(로얄티 하향수정), '89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상류 및 하류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BP, Shell, Exxon, Mobil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정유시설의 증·신설 참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은 독자적인 정유시설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어 '95년에는 정제능력이 500천B/D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있는 국가위원회인 The National Petroleum Policy Committee는 Shell Thailand가 620백만달러 소요의 145천B/D급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진전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 공장은 hydrocracking 시설을 포함할 것이며, 연료유를 가스오일로 전환시키기 위한 high-conversion시설의 추후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

Esso Standard(Thailand)는 그의 정유공장을 고도화시키고 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68천B/D에서 약 85천B/D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정유시설확대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95년 이후 신규정유시설 생산량의 75%를 수출, 국제석유제품생산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泰國은 라오스에 석유제품소비량의 36%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泰國의 제품수입은 50천B/D로 축소되는 반면 원유수입은 400천B/D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동남아 산유국의 추가공급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泰國의 원유수입 증가분은 中東산유국에 의해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동향,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부존자원 적다말고 낭비풍조 반성하자